"로맨틱 선샤인 타고 목포 맛·멋 즐겨요"

목포시 테마형 시티투어 운행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

목포의 역사, 문화,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는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로맨틱 선샤인'이 지난 21일 운행을 시작, 오는 11월까지 이어진다. 〈목포시 제공〉

"버스 타고 목포의 맛과 멋 즐겨요."

목포의 역사, 문화, 관광명소 등을 둘러보는 테마형 목포시티투어 '로맨틱 선샤인'이 운행을 시작했다. '로맨틱 선샤인'은 목포의 주요 명소를 돌아보며 연극, 영상 노래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숨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이 상품을 지난 21일 운행을 시작해 오는 11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로 운영한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엔 서울서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도 마련, 즐기는 체류형 상품으로 진행한다.

광주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서산동 시화골목, 대반동 스카이워크, 근대역사관1관(옛 일본영사관),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옛 세관창고), 평화광장을 거쳐 광주로 돌아가는 코스다.

또 목포의 청년사업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최초의 국민 여가수 이난영을 주제로 2명의 시간여행자가 탑승객과 동행하며 목포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뮤지컬 형식의 공연도 선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는 항구도시 목포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과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목포 해상W쇼'를 추가해, 목포의 맛과 야간관광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로맨틱 선샤인은 목포만이 가지고 있는 음악, 공연, 미식 등을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이라며 "'2022~2023 전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것으로 기대하며, 목포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울돌목스카이워크.

고산윤선도유적지.

"해남에서 알뜰여행 하자"

명량해상케이블카 등 5곳
이용 때 군 직영 관광지 무료

해남에서 알뜰여행을 즐겨보자.

해남군은 명량해상케이블카 등 관내 민간운영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군 직영 관광지를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운영 관광시설은 명량해상케이블카, 땅끝모노레일,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두륜산케이블카, 4est수목원 등 5개소이다. 시설 입장권과 탑승권을 제시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땅끝전망대와 우수영관광지, 고산윤선도유적지, 두륜미로파크 등 4곳을 무료입장할 수 있다.

이번 관광지 무료입장은 코로나19 기간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운영 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 방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23일부터 본격 시행,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운영기간 관광객 방문 추이 등을 분석해 향후 무료입장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무료입장을 통해 관광지를 상호방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민간운영 관광시설 이용 활성화는 물론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알뜰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직영 관광시설 입장료는 땅끝전망대 1000원, 우수영관광지 2000원, 고산윤선도유적지 2000원, 두륜미로파크 3000원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현대삼호중공업, 인력난 해소 자동화혁신센터 출범

회사 내 생산기술 관련 조직 통합

지난 19일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외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화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현대삼호중공업이 기계화와 자동화 방안 등을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사내 부서 단위 조직으로 출범한 자동화혁신센터는 회사 내에 흩어져 있던 생산기술 관련 조직을 통합해 고도화된 기계화·자동화 기술과 제품화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비숙련공 기반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해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조선해양 미래기술연구원에서 개발된 생산기술 및 상용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미래 기술과 산업현장 간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쉽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국책과제와 산학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사내외 협력회사에게 기술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올 들어 총 30척, 52억달러 상당의 수주 실적(2022년 목표대비 115%)을 달성해 2년 반 이상의 안정적인 작업물량을 확보했지만 학령인구와 조선인력 감소, 3D 직종 기피 현상,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 축소 등으로 작업 물량 처리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남도와 영암군, 지역 조선사, 사내외 협력회사 등과 함께 인력난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국내외 조선 인력 확보를 위한 법규 정비, 외국인 고용특구 지정,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력난은 기조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계화와 자동화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진도군, 전남 으뜸김 품평회 3관왕

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진도군이 제1회 전남 으뜸 김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품평회는 전남도에서 주최하고 (사)한국김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8개 지자체 45개 업체가 참여했다. 품평회에서는 진도바다영어조합법인(대표 이정근)이 최우수상을, 신광씨푸드(대표 이원복)는 우수상을, 동양수산(대표 김남연)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출품된 마른김은 윤기, 식감, 향미 등 전문가의 정성평가와 단백질 함량, 이물질, 색도 등 과학적 성분분석을 통한 정량평가를 통해 선정됐으며 모든 과정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더했다.

진도바다영어조합법인은 청정해역인 진도군 해역에서 1년중 한달만 생산되는 귀한 잇바디돌김(일명 곱창김)을 원초로 가공한 김을 출품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진도김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풍부한 일조량과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해역에서 생산되어 특히 영양가, 식감, 풍미가 탁월하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으뜸 김 품평회의 TOP 10 선정은 김 생산어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 진도 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마른김 품질과 경쟁력 향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에서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남 으뜸 김 품평회 시상은 제11회 김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영광군 '전남도 지방세정 평가' 2년 연속 대상

영광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2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납세자 편의 시책 등 지방 세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 3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한 평가다.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영광군은 2021년 전남도 세정연찬회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지방세 발전포럼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특별상 수상 최고 가점 부여, 민원인에게 원활한 세금 안내를 위한 전 직원 세무 교육 실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상승, 고령의 납세자 납부 편의 증대를 위해 고지서 활자를 크게 제작한 돋보기 고지서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원을 관리하고 납세자를 위한 각종 편의 시책을 확대 운영한 결과를 높이 평가받았으며, 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10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무안군, 조생양파 사주기 운동 전개

무안군이 최근 조생양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공직자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조생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이번 조생양파 사주기 운동에서는 총 612명의 공직자가 참여했다. 공직자들은 5kg 1망당 4000원에 총 925망을 구입했다.

또 전남도교육청 306망, 목포대학교 110망, 무안경찰서 80망, 무안교육지원청 21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6망 등 유관기관에서 양파 523망을 구입해 양파 재배 농가에 힘이 돼 줬다.

군은 앞으로 향우회나 자매결연도시와 연계 양파 사주기 운동과 소비촉진 정책을 펼쳐 양파 가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진희 무안군 농정과장은 "양파 해외 수출 시 한시적으로 수급안정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수출 물류비를 표준물류비의 10% 이내서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시행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